하이퍼리퀴드(HYPE)



주요내용설명서(국문백서)

Korean White Paper

2026년 11월 10일

Disclaimer

본 번역본은 2026년 11월 10일 기준의 하이퍼리퀴드(Hyperliquid) Docs 페이지, 미디엄 내 관련 내용 위주로 번역됐습니다.

빗썸은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제공하는 가상자산의 총발행량, 유통량 계획, 사업 계획 등이 포함된 정보를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번역본은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원문의 내용이 일부 누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습득을 위해서는 원문을 참고하시거나 원문 작성 측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 번역본은 오픈 커뮤니티의 검토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빗썸

프로젝트 소개

하이퍼리퀴드(Hyperliquid)는 '모든 것이 온체인화된 개방형 금융 시스템'을 꿈꾸는, 성능이 매우 뛰어난 블록체인입니다. 이 플랫폼은 풍부한 유동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활발한 트레이딩이 한데 맞물려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순환을 이루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금융의 중심 허브가 되는 것이 하이퍼리퀴드의 최종 목표입니다.

기술 개요

하이퍼리퀴드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기본부터 완전히 새롭게 설계하고 최적화한 고성능 레이어 1 블록체인입니다.

하이퍼리퀴드는 핫스터프(블록체인이 어떤 거래가 진짜인지 빠르고 확실하게 합의하는 방식 또는 알고리즘 중 하나)[1] 및 그 후속 기술들에서 영감을 받아 '하이퍼BFT(HyperBFT)'라는 독자적인 합의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이 알고리즘과 네트워킹 스택은 오직 하이퍼리퀴드 레이어 1의 고유한 목표, 즉 '초고속 금융'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 하나만으로 기초부터 전부 맞춤 설계되었습니다.

하이퍼리퀴드의 실행 구조는 크게 '하이퍼코어(HyperCore)'와 '하이퍼EVM(HyperEVM[2])'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엔진으로 나뉩니다.

- **하이퍼코어**: 이 시스템의 심장부로, 무기한 선물과 현물 거래를 위한 오더북[3] 전체가 100% 온체인에서 작동합니다. 하이퍼BFT 덕분에 모든 주문, 취소, 거래, 청산[4]은 단 하나의 블록에서 즉시 확정되며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하이퍼코어는 현재 초당 20만 건의 주문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 처리량 속도는 노드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통해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습니다.

[1] Hotstuff

[2] Ethereum Virtual Machine, EVM

[3] Orderbook

[4] Liquidation

- **하이퍼EVM**: 우리에게 친숙한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5] 환경을 하이퍼리퀴드에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이 덕분에, 하이퍼코어가 제공하는 막강한 속도의 유동성과 핵심 금융 기능들은 이제 모든 사용자나 개발자(빌더)가 마음껏 가져다 쓸 수 있는 빌딩 블록[6]이 됩니다. 누구나 이 블록을 조립해 자신만의 금융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 기여자

하이퍼리퀴드 랩스(Hyperliquid Labs)는 하이퍼리퀴드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 주체입니다. 하버드 동창인 제프(Jeff)와 일리엔싱크(Iliensinc)가 팀을 이끌고 있으며, 칼텍[7], MIT 등 최고 엘리트 출신 엔지니어들과 에어테이블[8], 시타델[9], 허드슨 리버 트레이딩[10], 뉴로[11] 같은 정상급 테크 및 퀀트 회사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하이퍼리퀴드 랩스는 2020년 가상자산 시장에서 자기 자본을 운용하는 마켓 메이커(MM)[12]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2022년 여름 디파이[13]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디파이 플랫폼들은 비효율적인 시장 설계, 부실한 기반 기술, 현저히 저하된 사용자 경험(UX)[14] 등 복합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플랫폼들에서 단기적인 수익 기회를 포착하는 것은 가능했으나 중앙화 거래소(CEX)[15]와 비교했을 때 디파이 생태계의 기술적 완성도나 서비스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팀은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들을 직접 해결하고 사용자에게 '끊김 없는(seamless)' 트레이딩 경험을 제공하는 고성능 프로덕트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퍼리퀴드 랩스는 어떠한 외부 투자도 받지 않고 100% 자체 자금으로 운영됩니다. 덕분에 팀은 그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휘둘리지 않고 자신들의 비전과 신념에만 오롯이 집중해 제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

[5] Smart Contract
[6] Building Blocks
[7] Caltech
[8] Airtable
[9] Citadel
[10] Hudson River Trading
[11] Nuro
[12] Proprietary market making
[13] DeFi
[14] User Experience, UX
[15] Centralized Exchange, CEX

비즈니스 모델

하이퍼코어(HyperCore): 핵심 엔진

합의

하이퍼리퀴드의 보안은 핫스터프 합의의 변형인 하이퍼BFT가 담당합니다. 대부분의 지분증명(PoS)[16] 체인과 마찬가지로, 하이퍼리퀴드에서도 검증인들이 블록을 생성합니다. 이때 블록 생성 권한은 각 검증인에게 스테이킹된 네이티브 토큰의 양에 비례하여 주어집니다.

실행

하이퍼리퀴드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아키텍처는 두 개의 전문화된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핵심 금융 데이터 처리를 위한 하이퍼코어이고, 다른 하나는 범용 앱 데이터 처리를 위한 하이퍼EVM입니다.

하이퍼코어는 마진(증거금)[17] 및 매칭 엔진(주문 체결 엔진)[18]의 상태[19], 즉 트랜잭션과 청산에 필요한 모든 핵심 데이터를 온체인에서 직접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하이퍼코어는 속도를 위해 중앙화 서버에 의존하는 오프체인[20] 오더북[21]이라는 편법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이퍼리퀴드의 핵심 설계 원칙은 '완전한 탈중앙화'이며, 이는 하이퍼BFT 합의를 통해 달성됩니다. 이 합의 알고리즘이 모든 트랜잭션에 대해 '일관된 단일 순서'를 보장합니다.

지연 시간[22]

현재 합의에는 엔드 투 엔드[23] 지연시간에 최적화된 하이퍼BFT 알고리즘이 사용됩니다. 여기서 엔드 투 엔드 지연시간이란 요청을 보낸 시점부터 최종 확정된 응답을 받기까지 걸리는 총 시간을 의미합니다.

---

[16] Proof of Stake, PoS

[17] Margin

[18] Matching engine

[19] State

[20] Off-chain

[21] Orderbook

[22] Latency

[23] End-to-end

서버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클라이언트에서 주문을 제출할 경우, 엔드 투 엔드 지연시간은 중앙값[24] 0.2초, 99퍼센타일[25] 0.9초를 기록합니다. 이러한 성능 덕분에 사용자들은 다른 가상자산 플랫폼에서 사용하던 자동화 전략을 최소한의 수정만으로 포팅(그대로 옮겨 적용)할 수 있으며, 일반 사용자들 역시 UI(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처리량[26]

현재 메인넷은 초당 약 20만 건의 주문을 처리합니다. 현재 병목 현상은 실행 단계, 즉 처리 로직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합의 알고리즘과 네트워킹 스택은, 이 실행 속도만 뒷받침된다면 초당 수백만 건의 주문까지도 처리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향후 필요에 따라 이 실행 로직은 더욱 최적화될 것입니다.

오라클

검증인은 모든 무기한 선물 자산의 현물 오라클 가격을 3초마다 게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오라클 가격은 펀딩비[27]를 계산하는 데 직접 사용될 뿐만 아니라, 시장 평균가[28]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시장 평균가는 마진(증거금)을 관리하고, 청산을 실행하며, TP/SL(이익 실현/손절매)[29] 주문을 실행시키는 핵심 기준값으로 사용됩니다.

각각 검증인은 현물 오라클 가격을 계산할 때, 여러 거래소의 현물 중간가[30]를 가중 중앙값[31] 방식으로 산출합니다. 대상 거래소는 바이낸스[32], OKX, 바이빗[33], 크라켄[34], 쿠코인[35], 게이트아이오[36], 멕스씨[37], 하이퍼리퀴드로, 가중치는 순서대로 3, 2, 2, 1, 1, 1, 1, 1이 적용됩니다.

---

[24] Median

[25] 99th percentile

[26] Throughput

[27] Funding rates

[28] Mark price

[29] Take Profit/Stop Loss, TP/SL

[30] Spot mid price

[31] Weighted median

[32] Binance

[33] Bybit

[34] Kraken

[35] Kucoin

[36] Gate IO

[37] MEXC

- 하이퍼리퀴드(HYPE)처럼 하이퍼리퀴드 내부가 '주요 시장'인 자산: 이 자산의 가격은 하이퍼리퀴드에서 형성됩니다. 따라서 오라클은 (아직 유동성이 적은) 불필요한 외부 거래소 가격을 참조하지 않고, 내부 가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비트코인(BTC)처럼 외부가 '주요 시장'인 자산: 이 경우 하이퍼리퀴드 내부의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 가격은 전체 시장을 대표하지 못하며, 오히려 가격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라클은 하이퍼리퀴드 자체 가격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바이낸스 등 신뢰할 수 있는 외부 시장의 가격만을 사용합니다.

최종적으로 청산소[38]가 사용하는 오라클 가격은 각 검증인이 제출한 가격들의 가중 중앙값입니다. 이때 각 검증인의 가중치는 이들의 스테이킹 지분에 비례합니다.

오더북

하이퍼코어가 관리하는 공식 데이터 원장 안에는 각 자산의 실시간 오더북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이 오더북은 CEX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주문은 가격이 틱[39] 사이즈(가격의 최소 눈금)의 정수배여야 하고, 수량은 랏[40] 사이즈(수량의 최소 단위)의 정수배여야만 등록됩니다. 모든 주문은 '가격 시간 우선 원칙'에 따라 체결됩니다.

무기한 선물 자산의 오더북은 모든 포지션 관리와 마진 확인을 총괄하는 청산소와 직접 연계되어 작동합니다. 이 때문에 하이퍼리퀴드는 마진 확인을 '두 번' 실행합니다. 즉, 신규 주문을 제출할 때 한 번, 그리고 주문이 체결될 때 오더북에 대기 중이던 기존 주문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중 확인 절차는 주문 제출과 체결 사이의 시간 차로 인해 오라클 가격이 변동하더라도 마진 시스템이 오류나 불일치 없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보장해 줍니다.

하이퍼리퀴드 레이어 1만의 고유한 특징은 멤풀[41]과 합의 로직이 트랜잭션의 '의미'(즉 신규 주문인지 주문 취소인지)를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시스템은 이렇게 파악한 의미를 기반으로, 하나의 블록 내 트랜잭션들의 처리 순서를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우선 정렬합니다.

1. GTC(취소 시까지 유효한 주문)[42] 또는 IOC(즉시 체결 후 잔량 취소)[43] 주문을 전송하지 않는 트랜잭션
2. 주문 취소
3. 하나 이상의 GTC 또는 IOC 주문을 전송하는 트랜잭션

[38] Clearinghouse

[39] Tick

[40] Lot

[41] Mempool

[42] Good Til Canceled

[43] Immediate or Canceled

각 카테고리 내에서는 블록 제안자(proposer)가 제시한 순서대로 트랜잭션이 정렬됩니다. '주문 수정(Modifies)' 트랜잭션은 수정을 통해 새로 생성되는 주문의 유형에 따라 위 카테고리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스테이킹

하이퍼리퀴드의 HYPE 스테이킹은 하이퍼코어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유에스디코인(USDC)이 무기한 선물 계정과 현물 계정 간에 전송될 수 있듯이 HYPE는 현물 계정과 스테이킹 계정 간에 전송될 수 있습니다.

스테이킹 계정 내의 HYPE는 원하는 수의 검증인들에게 스테이킹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리퀴드는 위임 지분증명[44] 방식만 지원하므로, 하이퍼리퀴드의 자료에서는는 '위임'과 '스테이킹'이라는 용어는 같은 의미로 혼용되어 사용됩니다.

각 검증인은 활성화되기 위해 10,000 HYPE의 '셀프 위임(자기 지분)[45]'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단 활성화되면 검증인은 블록을 생성하고 자신이 위임받은 총스테이킹 지분에 비례하여 보상을 받습니다. 검증인은 위임자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인상할 수 없지만 '인상된 새 수수료가 1% 이하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는 검증인이 대규모 지분을 유치한 뒤 정보가 어두운 스테이커들을 이용해 수수료를 대폭 올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스테이킹을 해제하는 과정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특정 검증인에 대한 위임은 1일의 락업 기간이 있습니다. 이 락업 기간이 지나면 언제든 위임 물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 해제[46]할 수 있습니다. 위임 해제된 HYPE는 즉시 스테이킹 계정 잔액으로 반영됩니다.

2단계: 이 스테이킹 계정의 자금을 현물 계정으로 옮겨야 실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물 계정에서 스테이킹 계정으로의 입금은 즉시 처리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스테이킹 계정에서 현물 계정으로 인출할 때는 7일간의 '언스테이킹 큐'(대기열)[47]가 적용됩니다.
이 7일의 대기 시간은 대부분의 다른 지분증명 체인들도 가진 메커니즘으로, 이는 대규모 합의 공격이 발생했을 때 삭감이나 커뮤니티 차원의 대응을 통해 페널티를 부과할 안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자동화된 삭감은 구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명의 사용자(각 주소)는 이 7일짜리 언스테이킹 큐에 최대 5개의 '대기 중인 출금'[48] 요청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44] Delegated Proof of Stake, DPoS

[45] Self-delegation

[46] Undelegate

[47] Unstaking queue

[48] Pending withdrawals

예를 들어, 3월 11일 08:00:00 UTC(국제 표준 시간)에 100 HYPE의 (스테이킹 계정에서 현물 계정으로) 전송을 신청하고, 3월 12일 09:00:00 UTC에 50 HYPE를 추가로 신청했다면, 각각의 전송은 정확히 7일 뒤에 완료됩니다. 즉, 100 HYPE 전송은 3월 18일 08:00:01 UTC에 최종 완결[49]되며, 50 HYPE 전송은 3월 19일 09:00:01 UTC에 최종 완결됩니다.

스테이킹 보상률 공식은 이더리움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보상률은 총스테이킹된 HYPE의 제곱근에 반비례합니다. 예를 들어, 총 4억 개의 HYPE가 스테이킹된 상태라면 연간 단리 수익률(APR)[50]은 약 2.37%가 됩니다. 스테이킹 보상의 재원은 향후 발행 예비 물량에서 나옵니다.

보상은 1분 단위로 누적되며 매일 스테이커에게 분배됩니다. 지급된 보상은 즉시 해당 검증인에게 자동으로 재위임되어 복리 효과가 발생합니다. 보상액은 각 스테이킹 에포크[51](아래 설명될 10만 라운드) 동안 해당 위임자가 유지한 최소 스테이킹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기술 세부 사항

쿼럼[52]이라는 개념은 하이퍼BFT와 같은 현대 지분증명 합의 알고리즘에 필수적입니다. 쿼럼이란 네트워크 전체 지분의 ⅔(3분의 2)를 초과하는 검증인 그룹을 의미합니다. 합의가 작동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이 쿼럼 지분이 정직(비잔틴 장애를 일으키지 않음[53])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스테이커는 신뢰할 수 있는 검증인에게만 지분을 위임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이퍼BFT 합의는 '라운드(rounds)' 단위로 진행됩니다. 이 라운드란 검증인 쿼럼의 서명이 포함된 트랜잭션들의 기본적인 개별 묶음입니다. 각 라운드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커밋(최종 확정)[54]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처리를 위해 실행 엔진으로 전송됩니다. 이 합의 알고리즘의 핵심 속성은 모든 정직한 노드가 커밋된 라운드들의 순서에 대해 완벽히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49] Finalize

[50] Annual Percentage Rate, APR

[51] Epoch

[52] Quorum

[53] Non-Byzantine

[54] Commit

라운드가 성공하면 새로운 '실행 상태 블록(Execution block)'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 실행 블록들은 '높이(height)'라 불리는, 별도로 증가하는 번호(카운터)로 구분됩니다. 이 '높이'는 하나 이상의 트랜잭션이 포함된 합의 라운드에서만 증가합니다.

검증인 구성원은 10만 라운드 주기의 에포크마다 갱신됩니다. 이는 메인넷 기준 약 90분에 해당합니다. 각 스테이킹 에포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검증인 구성원과 합의 지분이 변경 없이 유지됩니다.

검증인은 자신의 합의 메시지에 대해 적절한 속도나 빈도로 응답하지 않는 다른 검증인을 '감옥(jail)'에 보내는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감옥행 투표가 쿼럼을 충족하면 해당 검증인은 감옥 상태가 되어 더 이상 합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감옥 상태인 검증인은 자신의 위임자들에게 보상을 지급하지 못합니다.

검증인은 원인을 진단하고 문제를 수정한 뒤, 온체인에 설정된 '감옥 해제(unjailing) 속도 제한'에 따라 스스로 '감옥'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감옥은 삭감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삭감은 동일 라운드에 이중 서명을 하는 행위처럼 증명 가능한 악의적인 행동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최종적인 페널티입니다.

볼트[55]

볼트는 하이퍼코어에 내장된, 강력하고 유연한 핵심 기능입니다. 볼트에서 실행되는 전략들은 하이퍼리퀴드 DEX의 고급 기능들을 똑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레버리지 계정의 청산부터 초고속 마켓 메이킹[56] 전략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능이 포함됩니다. 이제 단순히 두 토큰의 비중을 조절하는 수준의 볼트에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볼트에 예치하여 수익 지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대가로, 볼트 소유자는 총수익의 10%를 가져갑니다. (단, 프로토콜 볼트는 수수료나 수익 지분을 받지 않습니다.) 볼트는 개인 트레이더가 직접 관리할 수도, 마켓 메이커(MM)[57]가 자동화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전략에는 그에 상응하는 위험이 따르므로 사용자는 예치하기 전에 해당 볼트의 위험도와 운용 내역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55] Vaults

[56] Market making

[57] Market Maker, MM

프로토콜 볼트

하이퍼리퀴디티 프로바이더(HLP, Hyperliquidity Provider)는 마켓 메이킹과 청산을 수행하고 거래 수수료의 일부를 받는 프로토콜 볼트입니다.

HLP는 다른 거래소에서는 일반적으로 특권층만 누리던 전략들을 대중화합니다. 커뮤니티(일반 사용자)는 이 볼트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로 인한 손익(PnL)을 함께 공유합니다. HLP는 전적으로 커뮤니티가 소유합니다.
예치 락업 기간은 4일입니다. 이는 가장 최근에 예치한 시점으로부터 4일이 지나야 인출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9월 14일 08:00에 예치했다면, 9월 18일 08:00부터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EVM(HyperEVM): 확장 엔진

하이퍼리퀴드 블록체인은 하이퍼코어와 하이퍼EVM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이퍼EVM이 별개의 독립된 체인이 아니라 하이퍼코어와 동일한 하이퍼BFT 합의 알고리즘을 공유하며 함께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합 구조 덕분에 하이퍼EVM은 현물 및 무기한 선물 오더북 같은 하이퍼코어의 핵심 기능들과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퍼EVM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하이퍼코(HypurrCo), 에이치엘 에코(HL Eco), ASXN, 하이퍼리퀴드 위키(Hyperliquid.wiki) 등 커뮤니티 멤버들이 구축한 다양한 앱, 툴,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이퍼EVM에서 개발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개발자들은 하이퍼리퀴드의 하이퍼코어와 하이퍼EVM을 통해 이미 검증되고 유동성이 풍부한 고성능 온체인 오더북을 즉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이퍼리퀴드에는 금융 혁신의 최전선에 서고자 하는 열성적인 핵심 사용자층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시도하거나 온체인에서 금융 활동을 하는 것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예시 1: 토큰 상장과 거래

A 프로젝트가 표준 EVM 툴링[58]을 사용해 하이퍼EVM에 ERC20[59] 컨트랙트를 배포하고, 동시에 하이퍼코어의 현물 경매에 A 현물 자산을 무허가로 등록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이퍼코어 토큰과 하이퍼EVM 컨트랙트가 연결되면 사용자들은 하이퍼EVM 앱에서 동일한 A 토큰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하이퍼코어의 네이티브 현물 오더북에서 해당 토큰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CEX 상장 대비 두 가지 핵심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특혜를 위한 막후 협상 없이 모든 과정이 무허가로 진행됩니다. 둘째, 하이퍼코어와 하이퍼EVM은 '하나의 통합된 상태'로 작동하므로 둘 사이에 어떠한 브리징 위험[60]도 없습니다. 하나의 체인에서 거래와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CEX 대비 10배 향상된 프로덕트 경험입니다.

예시 2: 랜딩 프로토콜 구축

또 다른 예로, 어떤 랜딩 프로토콜이 A 토큰을 담보로 받아 B 토큰을 대출해주는 풀 컨트랙트를 설정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랜딩 스마트 컨트랙트는 청산 기준을 정하기 위해 '읽기 프리컴파일(read precompile)'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여 하이퍼코어 오더북에서 A/B 가격을 직접 읽어올 수 있습니다. 솔리디티 개발자에게 이는 단순히 내장 함수를 호출하는 것만큼이나 간단합니다. 만약 차용자의 포지션이 청산되어야 한다면, 랜딩 컨트랙트는 '쓰기 시스템 컨트랙트(write system contract)'를 통해 하이퍼코어 오더북에서 A를 B로 스왑하는 주문을 직접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솔리디티의 간단한 내장 함수일 뿐입니다. 단 몇 줄의 코드로 이 랜딩 프로토콜은 하이퍼코어의 무기한 선물이 작동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프로토콜에 내장된 청산 기능을 구현한 것입니다. 하이퍼코어의 막대한 유동성을 추상화(복잡한 과정을 숨기고 단순화)[61]하여, 모든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이 가져다 쓸 수 있는 빌딩 블록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로 하이퍼EVM의 핵심 기능입니다.

하이퍼EVM은 현재 어떤 단계에 있나요?

하이퍼EVM은 현재 알파 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진적인 출시 방식을 택한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는 하이퍼리퀴드의 "내부자 없음(no insiders)" 원칙을 고수하기 위함입니다. 모두가 동등한 접근 권한을 가지며 공평한 출발선에서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대가로, 하이퍼EVM은 다른 체인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툴링을 완벽히 갖추고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이퍼리퀴드는 그 누구에게도 미리 정보를 주거나 통합 및 마케팅을 대가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기적인 장애물들은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58] Tooling

[59] Ethereum Request for Comments 20

[60] Bridging risk

[61] Abstract

둘째, 점진적인 출시는 하루에 수십억 달러의 거래량을 처리하는 복잡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성능 저하나 다운타임(서비스 중단)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셋째, MVP(최소 기능 제품)[62]를 먼저 출시하고 사용자의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며 반복 개발함으로써 개발팀이 더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넷은 기술적 테스트에는 유용하지만 시스템은 오직 실제 경제 활동을 통해서만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처리량을 더 높이거나 쓰기 시스템 컨트랙트 같은 핵심 기능은 아직 메인넷에 적용되지 않았지만, 머지않아(in due time) 도입될 것입니다.

토크노믹스

토큰 분배

하이퍼리퀴드(HYPE)의 제네시스 이벤트[63]는 2024년 11월 29일 07:30 UTC에 진행되었습니다. HYPE의 최대 발행량은 1,000,000,000(10억) 개이며, 분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38.888%: 향후 발행 물량 및 커뮤니티 보상
- 31.0%: 제네시스 분배
- 23.8%: 현재 및 미래의 핵심 기여자
- 6.0%: 하이퍼 재단 예산
- 0.3%: 커뮤니티 보조금
- 0.012%: 하이퍼리퀴디티(Hyperliquidity) 프로그램 (HIP-2)

토큰은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행되며, 이 중 76.2%가 커뮤니티에 할당됩니다. 제네시스 이벤트 시점에 3억 1,000만 개의 토큰이 적격 참가자에게 할당됩니다. 이 토큰들은 전량 락업 해제됩니다. 여기서 분배되지 않은 토큰은 향후 발행 물량 및

[62] Minimum Viable Product, MVP

[63] Genesis event

커뮤니티 보상 항목으로 편입됩니다. 하이퍼 재단 예산으로 6,000만 HYPE, 보조금으로 300만 HYPE, 하이퍼리퀴디티(HIP-2)로 12만 HYPE가 각각 할당됩니다. 발행되지 않은 3억 8,888만 개의 HYPE는 향후 발행 물량 및 커뮤니티 보상을 위한 예비 물량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핵심 기여자에게 할당된 토큰은 제네시스 이벤트 이후 1년간 락업됩니다. 대부분의 베스팅[64] 일정은 2027년에서 2028년 사이에 완료되며, 일부는 2028년 이후까지 이어집니다. 핵심 기여자는 제네시스 분배 대상에서 엄격히 제외됩니다. 프라이빗 투자자, CEX, 마켓 메이커에게 할당된 물량 역시 없습니다.

로드맵

하이퍼리퀴드는 별도 로드맵을 공지하고 있지 않으나, X(구 트위터) 및 미디엄을 통해 사업 현황에 대한 공지를 상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https://hyperfoundation.org/
- X(구 트위터) https://x.com/hyperliquidX
- 미디엄 https://hyperfnd.medium.com/

*상기 링크는 작성일 기준으로 유효한 링크이며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64] Vesting